

# 내실있는 기업운영 창립 30주년 맞아

## 무용제형 라미네이터기 도입, 환경에 동참

### 67년 미성사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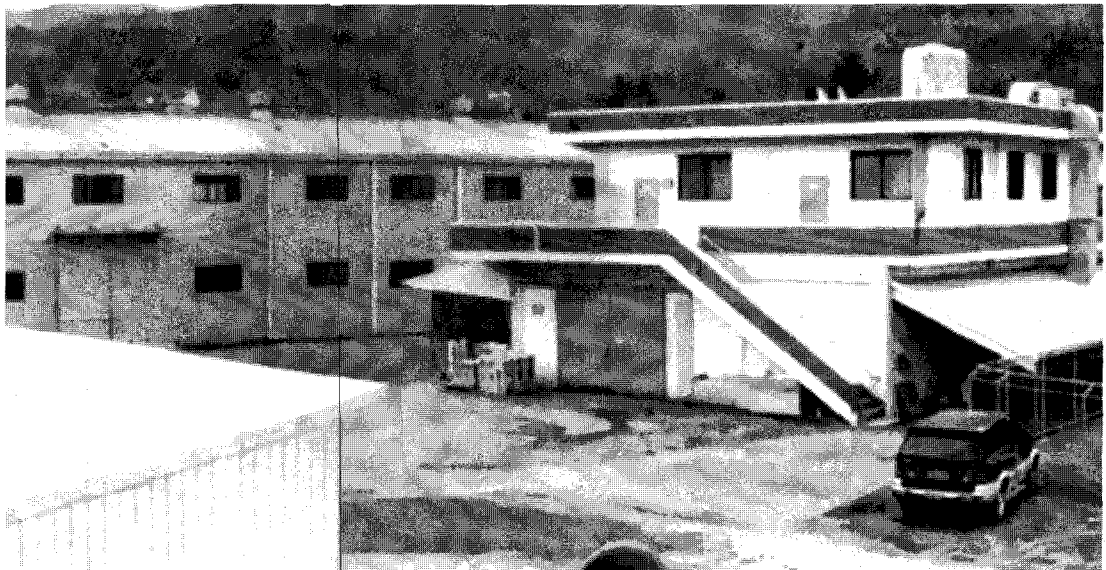
포장이 하나의 상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초창기 포장가공업을 하던 포장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게 시작하여 지금의 대기업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간 포장업을 하는 자신들조차도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왔고 식품업체들도 그저 싸게 개념으로 취급해 왔다.

이제는 식품업체들에도 중요성이 조금씩 인식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포장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포장의 초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67년 미성사라는 연포장인쇄회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미성포장산업(주)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할 일을 찾던중 재생 필름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의 일을 돕게되면서 포장과 인연을 맺고, 시장이 밝다는 판단하에 단도인쇄기를 확보하고 인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는 오응환 사장의 당시 나이는 27세, 그 당시의 거래처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신용과 서비스를 신념을 거래하고 있다.



▲미성포장산업 용인공장 전경.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늘 낙농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는 포장업에 종사하기전 버터와 치즈를 생산하기 위한 낙농업에 17년간이나 종사해 왔다.

그러는 동안 미성은 경영인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는 늘 꿈꾸어왔던 푸른초원에서 젖소들과 함께 지내며 국민체력 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일했다.

고향 터에서의 생활이라 더할나위없이 안정된 생활이었으나 포장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오 사장은 87년 17년간 해오던 낙농업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포장업에 몰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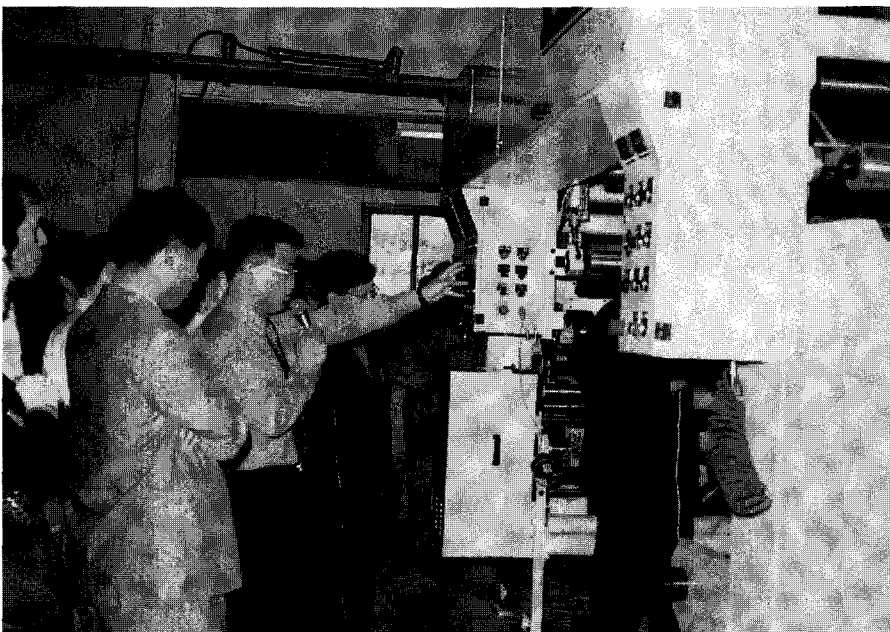


▲미성포장산업(주) 오윤환 대표이사

### 직원의 자질향상 강조

먼저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경영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자다운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전문서적을 읽고 지식을 섭렵하였는가 하면 종업원들에게도 늘 연구하고 스스로 전문인이 되기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하여 인쇄기능사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포장은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은 ‘포장을 아름답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포장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선구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라는 오 사장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이 떨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 한국코사리베르만이 주최하고 미성포장산업이 후원한 설비시연회 장면.

93년 미성포장산업(주)로 법인전환하고 94년 지금의 용인공장으로 신설 이전한후 새로운 다짐과 함께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미성은 현재 용인공장에서 6명의 방글라데시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30여명의 종업원이 땀을 흘리고 있다.

관리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해 가고 있는 김동규 상무는 10여년전 미성에 우연한 기회로 입사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일이 그의 손이 닿아야 할 만큼 세심한 운영을 하고있다는 주의의 평을 듣고 있다.

“저희 미성은 현재 취급품목이 일부 제과에 한정되어 있고 그외 식품부분의 비중이 빈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매출의 신장을 위해서는 제과이외의 식품분야로의 판로개척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식품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만큼 진출할수 있는 폭도 넓어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 주로 제과류를 취급하고 있는 미성의 생산제품.

### 최근 Q마크 지정업체로 지정

미성은 지난달 무용제형 라미네이팅기를 도입하였는데 이번 설비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이것은 오 사장의 경영방식이 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의 내실을 기하며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미성은 최근 한국생활용품연구원으로부터 품질보증업체로 지정받기도 했으며 계속적으로 ISO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식품포장재의 잔류용제 문제가 대두되어 연포장업체가 전체적인 위기를 맞았는데 미성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측정기구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설치하고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직원의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라 인력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미성은 초창기멤버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가족과 같은 분위기이다.

처음 기업을 설립할 당시 그룹으로 발전할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오 사장은 이제 선일곱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로부터 품질과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남기고 싶은 것이 그의 포부이다.

지난 95년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부도나는 업체도 많았고 미성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들의 뒷받침으로 이겨

낼 수 있었으며 오 사장을 지탱하게 했던 또하나의 원동력은 신앙이다.

가족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부인은 권사로, 오 사장은 장로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하다 보니 고향의 모든 대소사를 관여해야하므로 경영자이외의 일로서도 무척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 가입함과 동시에 혼자 떨어진 기업이 아닌 동종업체들과 함께할 것과 크기는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는 그는 포장협회도 진정한 포장문화를 형성하고 업계간 질서유지를 위해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날 마침 미성이 최근 도입한 무용제형 라미네이터기인 ECOCONVERT JUNIOR에 대한 설비시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연포장업계 관계자 30여명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모두들 규모가 작은 미성의 이러한

[표] 주요설비현황

시 설 명	규 격	수 량
그라비아 8도 인쇄기	1,200mm	1
그라비아 6도 인쇄기	1,000mm	1
그라비아 4도 인쇄기	900mm	1
그라비아 1도 인쇄기	900mm	2
T/D 라미네팅기	1,000mm	1
무용제 DRY 라미네팅기	1,100mm	1
DRY 라미네팅기	900mm	1
SLITTER(대)	1,200mm	1
SLITTER(중)	1,000mm	1
SLITTER(소)	900mm	2

시도에 놀라움과 동시에 호기심을 가진듯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공장에 다시금 기계소리가 생기있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성의 환경을 위한 노력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진행되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

이산하 기자



◀ 지난 9월 4일 용인공장에서 열린 Eco-Convert Junior 세미나에서 오용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